

전북형 웰니스 관광 생태계 본격 확대

전북문화관광재단,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발굴... 최종 10개소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전북 고유의 특색을 살린 웰니스 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해 전북형 웰니스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총 30개소의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했다.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지역 내 힐링/명상, 한방, 전통/생활문화, 뷰티/스파, 치유음식 등 6개 테마로 분류,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자연/치유' 테마에서는 △국립집안고원산립

치유원, △그린장수 치유의숲, △꽃다비팜, △변산반도생태탐방원, △우리들의정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자연 속 명상과 산림 치유, 원예 및 화해를 이용한 심리 치유가 이뤄지는 관광지다. '치유음식' 테마에서는 △순창발효테마파크, △토굴발효, △취계팜 등 3개소가 선정됐다. 발효음식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미식 체험 관광지다. 이 외에도 '뷰티/스파' 테마에서는 홍삼을 활용한 △진안 홍삼한방타운이, '전통/생활문화' 테마에서는 한(韓)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4남매체험농장이 각각 선정됐다. 재단은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콘텐츠 고도화,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웰니스 관광지과 주변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전북형 웰니스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전북 고유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식, 전통, 한(韓) 문화를 결합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중심지로 전북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 웰파크시티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신규로 선정되면서 전북은 총 6개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충렬사·우물 5곳 문화유산 신규 관리

충렬사 향토문화유산·역사적 가치 큰 우물 5곳 관리대상 신규 지정

정읍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덕을 기린 충렬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큰 마을 우물 5곳을 추가로 관리대상에 올렸다. 시는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충렬사를 새롭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또 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상학마을 우물, 표천마을 우물, 봉암마을 우물 등 총 5개소다. 특히 조소마을 우물은 전통준 장군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간직한 우물로 주목받고 있다. 현암마을 우물은 팔각형 돌난간으로 독특한 보존 형태를 지니고 있고, 표천마을 우물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쓰던 방식에서 마을명이 유래돼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상학마을 우물은 수질 관리가 뛰어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며, 봉암마을 우물은 두레박을 걸던 전통적 방식을 보존하고 있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이미 정해마을 우물 등 4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우물까지 더해 총 9곳의 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물이 풍부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지역 명칭에도 우물 정(井)자가 포함된 유서 깊은 곳"이라며 "충렬사와 우물 등 지역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김대환 기자

남원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철쭉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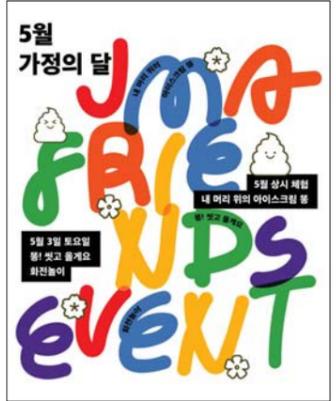
남원시 운봉읍 애향회는 지난 26일,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에서 제29회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철쭉제 기념식을 개최했다.

남원시 운봉읍 애향회는 지난 26일,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에서 '제29회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철쭉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 농악 공연인 터울림으로 시작해, 산신제를 지내며 아래봉을 찾은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고 축하공연, 기념식, 철쭉가요제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먹거리 장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운봉읍은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및 남원누리 시민 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제95회 춘향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팔랑치를 비롯한 아래봉 일대 철쭉 군락지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개화가 예상된다. 아래봉 정상(1,160m)은 하단부보다 약 600m 높아 개화가 다소 늦어, 5월 중순까지도 연분홍빛 철쭉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린이 맞춤 체험 프로그램 '풍성'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5월 3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오는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어린이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미술관 야외광장에서 바닥 꽃 그림 그리기 체험인 화전(畵展)놀이로 진행된다. 화전놀이는 봄날 자연 속에서 꽃을 감상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기던 전통문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자연을 배경 삼아 자유롭게 예술을 창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객들이 미술관 야외광장 바닥을 캔버스 삼아 물에 지워지는 분필로 다양한 색의 꽃을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선시에는 1층 체험실 앞에서 클레이로 나만의 풍을 만드는 '니 풍, 내 풍, 칼리풍'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미술관 1층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분필을 제공받아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에 참여한 후 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인증하면 커피박 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외에도 미술관에서 전북미술사연구 시리즈 '박민경:변주된풍경'이 진행되고 있다. 기억과 감각으로 그린 풍경화가 105점 전시, 7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행된다. 행사 외에도 미술관에서 전북미술사연구 시리즈 '박민경:변주된풍경'이 진행되고 있다. 기억과 감각으로 그린 풍경화가 105점 전시, 7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국악와인열차로 남원 가자'... 수도권 관광객 남원 방문 예정

남원시가 올 상반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테마 관광열차 '국악와인열차'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 2,6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이 남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악와인열차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공유를 위해 마련된 테마 관광열차로, 5월까지 모두 15회 남원을 방문하며, 춘향제 기간에는 450명의 관광객이 춘향제와 지리산 아래봉 철쭉제를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국악와인열차는 여행사에서 직접 구입

한 남원시상품권 1만원권과 남원 전통술 세트를 관광객 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국악와인열차 운영 여행사와 협력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을 방문하는 사전계획서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는 여행자에게는 남원시 전용 장바구니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취타대 환영식 등 차별화된 관광객 맛을 통해 남원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통한지 예술교육 '오월 꽃'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한지의 다양한 쓰임과 활용을 알리기 위해 전통한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오월 꽃'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4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 한지공예의 한 분야인 지화(紙花)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지로 봄꽃을 만들어보는 실용형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지화(紙花)'는 오랜 세월 동안 의례와 장식, 일상 등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활용되어 온 전통공예로, 한지의 섬세한 질감과 고유의 색감을 살려 꽃의 형태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참여 대상은 한지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직접 만든 지화를 개인 작품으로 소장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5월 6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